

5



대피할 때에는 화재의 진행방향에 주의하여 막다른 장소는 피하세요.

6



문 손잡이가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경우에는 문을 함부로 열지마세요.

7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으로 새어올 경우에는 담요나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틈을 막으세요. 실내에 갇혔을 경우에는 간헐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세요.

8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등에 물을 뿌리고 커튼은 떼어내세요.

9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빨리 바닥에 엎드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후 좌우로 구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담요나 수건으로 구르는 사람을 덮어줍니다.

숨어 있는 열정을 깨워주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채지형 / 여행작가 www.traveldesigner.co.kr

지구편 반대쪽에 자리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곳에 가면 뜨거운 열정을 만날 수 있다. 탱고와 축구, 와인과 아사도, 에비타와 마라도나, 보르헤스와 가르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이콘들은 하나같이 세상을 태워버릴 것 같은 열정을 품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열정'이라는 단어로 기억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일 것이다. '남미의 파리'라 불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푸른 바다만큼 깊고 깊은 그곳의 아름다움 속으로 떠나보자.

영혼의 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

아르헨티나 사람에게 탱고는 삶이자 역사요, 문화이자 위안이다. 탱고를 보는 것은 예술을 보는 것인 동시에 아르헨티나를 보는 것이다. 19세기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아르헨티나로 흘러온 이방인들의 설움과 아픔, 절망과 외로움이 탱고의 애절한 가락과 현란한 몸짓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탱고는 눈물이다. 자존심 강한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한 후 되돌아 몰래 흘리는 눈물이다. 탱고는 서늘이 퍼린 칼날이다. 결코 마주치지 않는 눈빛과 과격한 발동작은 중세 기사들의 칼날처럼 날렵하고 비장하다. 탱고는 사랑에 빠진 여인이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랑에 빠진 여인, 탱고는 그렇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만큼 열정적이다.

탱고 없는 아르헨티나는 김치 없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행자의 눈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다. '몸으로 쓰는 시', '춤추는 슬픈 감정' 등 수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 탱고. 주말이 되면 부에노스아이레스 곳곳에서 밤낮으로 절절한 탱고가 흐른다.

탱고를 보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토르포니를 찾았다. 카페 토르포니는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보르헤스를 비롯해 아르헨티나의 예술가라면 이곳의 커피를 즐기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유서 깊은 곳이다. 탱고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있는 까를로스 가르델의 흉상도 이곳을 지키고 있다.



공연이 시작된 시간은 밤 11시. 진짜 뽀르떼노(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들이 찾는다
는 탱고 공연이었지만 정작 들어가 보니 여행자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와인을 한 잔
시켜놓고 탱고에 빠져들었다. 피아노는 배를 내놓고 있고 보물상자 같은 반도네온은 나
비처럼 집혔다 펼쳐지기를 반복했다.

도도한 눈빛과 애타는 남자의 표정, 조명에 오래된 반도네온이 빛나고 남자 배우는 끊임없이 반짝이는 구두를 들썩였다. 다리로 남자의 허리를 휘감아 돌다가 상대방을 뚫어 버릴 것처럼 쳐다봤다. 남자의 가랑이 사이로 다리를 접어 넣었다 뺐다 하면서 온 몸을 맡기고 바닥에 닿을 때까지 넘어지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평행선을 달리는 시선은 절제의 애절함을 전해줬다. 폭포의 물처럼 힘차게 흐르다가 호수처럼 잔잔하게 움직이는 탱고 댄서의 손끝과 발끝. 눈도 마음도 도대체 뻐 수가 없었다.



탱고의 고향, 라 보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길거리에서도 얼마든지 탱고를 만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라 보카. 탱고가 태어난 고향이 바로 이곳이다. 흰색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라 보카는 화려한 모습과 달리 이민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품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먼 길을 날아온 이민자들은 이곳의 작은 술집에 모여 외로움과 아픔을 서로 나눴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탱고. 탱고는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절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라 보카의 곳곳에서는 탱고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라 보카에는 100m 정도 이어진 아담한 까미니또 거리가 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모여 있는 양중맞은 곳으로, 사진찍기 좋아하는 이들의 손과 발을 사로잡는 곳이다. 거리도 아름답지만, 그 거리에서 태어난 무명 화가들의 작품들도 볼 수 있어서, 어슬렁거리는 즐거움을 안겨준다.

라 보카 옆에는 남미 최고의 축구클럽인 보카 주니어스의 홈구장도 자리하고 있다. 초콜릿 상자라는 뜻의 '라 봄보네라 경기장'으로 알려진 이곳에서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축구에 대한 열기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특별한 묘지, 레콜레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특별한 곳을 꼽을 때 빠지면 안 되는 곳이 레콜레타다. 1822년에 세워진 레콜레타는 1만 7000여명 부지에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명성 있고 부유한 인물들이 잠들어있다.

레콜레타에 들어가니 묘지라기보다는 조각 전시장에 들어온 느낌이였다. 역대 대통령 13명을 비롯해 유명인들이 안장되어 있는 이곳에는 칸딘스키와 같은 유럽 대가들의 조각품을 비롯해 화려한 조각품들이 가득하다. 70여 개의 조각품이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은 에바 페론, 에비타의 무덤. 1919년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아르헨티나의 퍼스트레이디로 불리는 삶을 살아온 그녀의 무덤 앞에 지구촌 곳곳에서 온 여행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커피와 함께 나오는 탄산수에 입을 행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찬찬히 돌아본다. 마음을 흔들어놓는 탱고부터 일상을 예술처럼 사는 포르테노들, 잊지 못할 멘도사산 말백과 진한 커피, 길거리에서 펼쳐지는 무지개 빛 공연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한번 빠지면 헤어내기 힘든, 마력을 지닌 곳이다. ☺

여행정보

- ▶ 기후 : 한국과 낮과 밤, 시간, 계절이 반대다.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3월부터 5월(가을)사이와 9월부터 11월(봄) 사이
- ▶ 항공 :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직항편은 없다. 미국 LA를 경유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동해야 한다. 환승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비행시간만 16시간 50분 정도 걸린다.
- ▶ 비자 : 입국 시 90일간 무비자
- ▶ 화폐 : 페소(peso)
- ▶ 언어 : 스페인어

